

배드민턴 보급 活性化 위해

추동근린공원내 추동배드민턴장 개장식

의정부시는 배드민턴 보급 활성화를 위해 추동근린공원내에 배드민턴장 설치공사가 준공됨에 따라 7월1일 오전10시 배드민턴 동호회원 등 5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장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김문원 의정부시장과 이학세 의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과 헌관식, 배드민턴장 시설 견학 등으로 이루어졌다.

추동근린공원내에 설치된 추동배드민턴장은 6천874㎡면적에 1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했다.

2005년 9월 시작된 공사는 올해 5월 준공되었으며, 25여여원을 들여 6면의 배드민턴장과 샤프터, 신발로, 주차장등이 설치되어 있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생활체육시설인 추동배드민턴장이 개장되어 매우 기쁘다며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직동근린공



원내 인조잔디축구장 등을 설치해 생활체육이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2008년 예산편성 Cyber 설문조사

경기도 도민의견 수렴위해 경기넷 통해

경기도는 2008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도민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운영 방향설정과 투자 우선순위에, 예산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7월20일까지 경기넷을 통해 사이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경제투자, 문화관광, 농정, 복지건강, 환경, 발달수질개선, 교통, 건설, 가족여성의 9개 분야 항목을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분야별(실국별) 토론회를 거쳐 종합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실시하는 이번 도민의견수렴은

1,100만 도민이 "앞서가는 경기도", "편리한 경기도", "살사는 경기도", "매력 있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의 실행방향을 정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보여 지며 도민들의 참여행정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도 관계자는 '08년 예산편성을 위한 경기넷 Cyber 설문조사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도민들의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0회 의정부시문화상 후보자 모집

8월20일까지 학교교육·문화체육·지역발전 부문

의정부시는 제20회 의정부시문화상 3개부문 후보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난 88년부터 의정부시문화상을 시상하기 시작해 올해가 20번째로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1개월간 후보자를 접수하며, 학교교육부문과 문화체육부문, 지역발전부문 등 3개분야에 각 1명씩 선정하게 된다.

각 부문별 후보자를 접수받아 9월중 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시민의날 기념식에서 시상하게 된다. 후보자 신청자격은 5년 이상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의정부시인자로 해당부문에 5년 이상 현직에 기거한자가

여야 한다. 또한 의정부시내 기관, 단체, 기업체에 10년 이상 소속하면서 의정부시의 명예를 선양하였거나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한 자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의정부시 문화상은 학교교육, 문화체육, 지역발전부문 등 총 3개 부문에 대하여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며 지역발전에 헌신·봉사한 유공자를 선정·시상하여 자긍심과 애郷심을 고취시키는 뜻 깊은 상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청 문화체육과(828-2151)로 하면 된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여풍당당!! 날개를 달자!!’

제12회 여성의날 기념식 다채롭게 펼쳐



의정부시는 제12회 여성주간을 맞아 '여풍당당!! 날개를 달자!!' 라는 슬로건 아래 여성주간을 기념하고 여성발전과 남녀평등 촉진에 대한 법 시민적 관심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했다.

7월3일 오후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김문원 의정부시장 등 시민 1천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이 열렸다.

이어서 식후행사로 2007여성과학 콘서트 행사가 열렸다.

로스쿨리 필하모니오케스트라 공연과 서울필하모니합창단, 뮤지컬 가수 박혜미가 함께 하는 축하공연

이 열렸다. 여성주간을 맞아 2일부터 4일까지 의정부예술의전당 로비에서 일신과 출산, 갱년기 여성관리, 가정폭력·성폭력 예방홍보 및 성폭력방지 호루라기 경정, 성격검사 등 여성건강 및 권익보호 전시·체험마당이 개최됐다.

이밖에도 7월4일 오전 10시30분부터 의정부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는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환경 조성이라는 주제로 서명사전 한국여성개발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여성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행복을 함께 나누는 의정부1동

쌀200kg 노숙인상담센터 등 어려운 시설에 전달

의정부시 의정부1동사무소는 지난달 20일 익명을 밝히지 않는 주민이 찾아와 쌀 200kg을 동사무소에 기탁하며 어려운 시설에 지원해 달라고 해 화제가 되고 있다.

쌀을 기증한 주민은 최근 늘어나는 노숙인과 어려운 경제로 손길이

닿지 않는 불우시설들에 전달해 달라고 했다.

이원재 의정부1동장은 쌀 200kg을 노숙인상담센터와 노인주간보호센터, 노인단기보호센터, 삼곡노인주간보호센터, 한빛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노인학대예방센터 등 어려운 시설에 지원해 주었다.

김준호 노숙인 상담센터장은 "후원해 주신 익명의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런 분이 의정부1동에 살고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노숙인상담센터가 되겠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토뉴스



실학순례 2007 발대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월3일 대학생 실학순례 2007 발대식에 참석해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제12회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7월5일 경기도 문화의전당에서 열린 제12회 경기도 여성주간 기념식'에서 여성발전 유공자에 대한 시상상을 한 후 시상자의 가족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동두천 성경원

이미숙무용단(단장 이미숙)은 7월4일 동두천 성경원에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나는 전통춤 한마당을 개최해 성경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파주진인선원, 의정부 종합사회복지관에 이어 동두천 성경원에서 실시했으며 전종출 한마당을 개최해 성경원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 공연은 찾아가는

연천백학산업단지 본격개발

예상분양가 평당 70~80만원대로 저렴

파주 LCD 첨단산업단지와 30분 거리에 위치한 좋은 입지조건과 평당 70~80만원대라는 저렴한 예상분양가로 기업인들의 관심이 집중된 연천백학산업단지가 7월2일 실시계획승인 고시를 계기로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에 나선다.

경기지방공사(사장 권재욱)와

연천군(군수 김규배)이 공동시행하는 백학산업단지는 연천군 백학면 봉우리 일원에 부지면적 3998,507㎡로 사업비 755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이다.

또한 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각종 규제가 묶여 수도권

산업단지이기도 하다.

공사는 올 10월에 수도권 산업단지에서는 가장 저렴한 평당 70~80만원대에서 분양할 예정으로, 친환경적 무공해 첨단업종 유치와 지역특화산업 유주의 계획적인 산업단지조 조성할 예정이다.

아울러 80여개 기업유치를 통한 10,000여명의 고용창출효과로 그동안 줄어든 가던 경기도 북부의 연천지역 인구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도 37호선 도로변에 위치한 좋은 입지조건으로 파주LCD단지와 30분 거리는 물론, 동두천 1.2 산업단지, 상동읍 단지, 양주 구암·검촌 산업단지 등을 연결하는 첨단 산업단지 벨트에 위치해 휴전선과 인접한 접경지역에 조성되는 산업단지의 교두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경기지방공사 단지조성팀 031-220-3068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 단행

승진 64명 등 197명 규모 전보·전입 이동

경기도는 한미 FTA 대응, 뉴타운 사업 추진 등 신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6월29일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한데 이어 일주일만 7월 6일, 승진 64명, 전보 및 전입 등 133명 규모의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 조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5급 및 6급 승진자는 해당 정원직위로 전보하고 7급이하 승진자는 자체승진을 통해 현부서에 재배치하는 등

전보 인사는 최소화 했다.

단, 전보인사에 있어 국외훈련 이수자를 전공과 능력에 맞게 재배치해 조직의 국제화 대응 능력을 강화시키고, 전문 역량 보유 인력을 전문성과 실무경험에 따라 재배치하여 실국별 필수 인력 충원에 역점을 두었다.

또한, 정가인사에 5급 승진자를 선발, 승진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40~50여명의 6급 실무인력이 한반에 8주간 자리를 비워왔으나, 이번 인사에는 업무공백 최소화 및

조직 안정을 위해 5급 교육대상자 20명을 조기 선발할 바 있다.

이번 인사와 관련 도 인사 관계자는 "조직의 긴장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종전의 연공서열에 따른 보직운영 등 관행화 된 인사방향을 과감히 탈피하여 분야별 전문성 발휘할 수 있는 전보인사와 아울러 업무성과에 따라 우수자에 대한 승진 및 상위보직 부여, 성과 미흡자에 대한 전보조치 등 신상필벌 인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찾아가는 서비스의 원동력

의정부시 주민네트워크협의회 구축

의정부시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민관협력활성화를 위한 주민네트워크 구축 설명회를 7월4일 오후3시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극장에서 통장, 자생단체장, 민간네트워크 관계자 등 7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주요내용 설명과 민관협력과제별 추진계획 및 주민협의회의 역할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어 경희대학교 김경희 교수의 민관협력 활성화란 주제로 특강이 열렸다.

김문원 의정부시장은 "이번 전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찾아가는 능동적이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변화된 것"이라며 "주민의 욕구를 행정의 최일선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각 동 통장 및 자생단체장에게서 주민들의 서비스 만족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민관협력활성화의 기틀을 마련하고 주민들에 대한 8대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동안 다양한 준비를 해 왔다.

지난 1월 민간네트워크협의회를 구축한 이후 민간 기관간 유사사업에 대한 대상자 공유와 조정을 통해 서비스의 총량을 꾸준히 확대해 가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공공네트워크 협력단을 구성하여 주민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모든 사업을 협력,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동별도 복지사 공무원과 방방간호사, 가정봉사원,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등 찾아가는 서비스팀인 사례관리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어 주민네트워크협의회가 대상자들의 욕구발굴은 물론 자체 서비스 지원 등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혁신의 핵심요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이미숙의 전통춤 이야기⑨ 한량무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

한량무(閑良舞)는 1979년5월2일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 보존되고 있는 춤이다. 한량무는 한량과 승려가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이다. 한량이란 일정한 벼슬 없이 놀고 먹는 양반을 말한다.

유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조선 후기에 생긴 사당패에 의해 연극으로 행해졌고, 고종(재위 1863~1907) 때 정현석의 『교방가요』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 말엽에 유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1910년 이후에는 기방(기생집)에서 성행하였다.

한량무에는 악사, 한량, 승려, 색사, 주모, 벌갑, 상좌, 마당쇠가 등장하는데, 배역에 따라 성격이 다른 춤사위와 옷차림으로 구성된다. 한량의 경우에는 도포에 정자관을 쓰고, 벌갑은 궁중별관복을 입고, 색사는 궁중기생 옷으로 풍우리에 색한삼을 끼고 족두리를 쓴다. 승려는 승복에 가사를 매고 작은 방갓을 쓴다.

내용은 타락한 선비, 파계한 중, 정조 없는 색사, 게으른 관리 등을 응징하는 조선시대의 퇴폐성을 풍자하고 있다.

한량무는 우리나라 가만극 중 기녀계에서 연희되던 최초의 극형식 춤으로 역동성, 남성다움을 간직하고 있어 남성춤의 대명사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궁중계의 춤도 아니고 순수한 민속춤도 아닌 교방계류의 무용극이라는 데에 의의가 있다. 예능보유자 김덕명씨 외 6명이 그 맥을 이어가고 있다.

한량(閑良)이란 호반(虎斑)출신으로 무과에 급제하지 못한 사람 또는 돈 잘 쓰고 노상 놀고 먹는 사람을 이른다. 한량무(閑良舞)는 한량(閑良)과 중이 한 여인을 유혹하는 내용을 춤으로 표현한 무용극(舞劇)으로 원래 남사당패(男寺堂)가 놀았던 것이다. 사당패(寺堂)는 조선(朝



鮮) 후기에 생겼고, 한량무(閑良舞)에 있는 승무(僧舞)가 고종(高宗) 때 정현석(鄭顯碩)의 『교방가요(敎坊歌謠)』에 기록되었음을 보면, 한량무가 조선 말엽에 성행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민속가면극의 소무(小巫)와 노장(老長)의 대무리든가, 포도대장(捕盜大將)과 소무(小巫)의 애정 장면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진주한량무는 교방계(敎坊系)의 무용으로 보여진다.

문의: 의정부시무용단 031-877-8891
이미숙 단장